

## 영국의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 정책

###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공공건축의 중요성

- 우리나라 국부(國富)에서 건축이 포함된 유형고정자산의 비율이 40%에 이르며, 전체 건축물 시장에서 공공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1/3에 달하는 현실에서 공공건축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
-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건축의 문화자산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수입 등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
- ※ 스페인 빌바오: 빌바오시티 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조성(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 등)으로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전하였으며, 약 1,500억원의 투자로 6년간 1조 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둠
- ※ 프랑스 파리: 미테랑 프로젝트를 통해 낡고 쇠락한 파리의 도시이미지를 쇄신하고 문화선진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였으며, 사르코지대통령은 장누벨 등 세계적인 건축가 10명을 초청하여 21세기 파리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공모전을 개최

### 공공건축의 디자인향상을 위한 범국가적 정책의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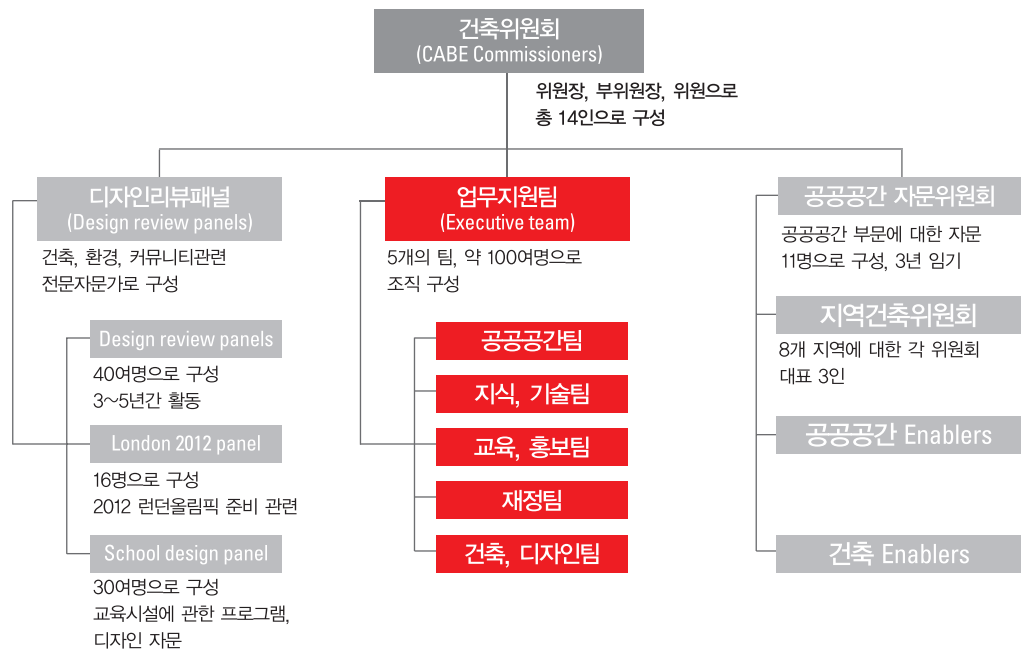
- 영국은 공공건축의 디자인향상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, 정부와 건축위원회(CABE)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, 조달청(OGC)과 건설산업위원회(CIC) 등의 협조를 통해 범국가적인 공공건축 디자인향상 정책을 추진 중
- 공공건축의 기획단계에서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「Design Enabling」
- 건축·도시관련 공공프로젝트의 조안자 역할을 하는 「Design Review」
- 공공건축물 디자인품질 향상과 지속적 관리도구로써의 「DQI Tool」
- 영국 수상의 「좋은 공공건축물 포상제도」

## 1. 영국 건축위원회(CABE)의 구성과 역할

###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- CABE(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)는 건축과 도시환경, 공공 공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정부자문기구로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, 건축가 John Sorrell경이 2004년 이후로 위원장을 맡고 있음
- 16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건설경제, 건축계획·설계, 도시계획·설계, 공공공간계획, 환경운동 등의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, 위원회 산하에 디자인리뷰패널과 자문단(Enablers), 업무지원팀 등을 두고 있음
- 문화영상체육부(Department for Culture, Media and Sport), 커뮤니티·지방자치부(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)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

### CABE의 조직체계



### 위원회의 역할

- 「Design Review」를 통해 국가적인 주요 공공프로젝트의 발주자, 개발업자, 건축가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
- 공공기관에서 심의를 담당하는 주요 건축·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해 직접적인 권고를 통한 디자인 개선유도와 공공기관의 자체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디자인 기술지원
- 건축 및 도시환경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과 기술개발을 장려하고, 건축과 디자인, 공공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캠페인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준향상 도모

## 2. 「Design Enabling」을 통한 기획단계 디자인 방향 제시

### 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

- 공공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 수행조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CABB내에 200여명의 분야별 자문단(enablers)을 구성하여 운영
  - 건축가, 도시계획 및 설계, 조정설계자, 프로젝트관리자, 엔지니어, 부동산감정인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, 자문위원의 임명은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주요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함

### ■ 「Design Enabling」의 역할

- 공공프로젝트에서 디자인팀이나 개발업자가 선정되기 이전인 발주초기의 기획단계에서 관련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디자인 방향성을 검토
  - CABB에 소속된 자문단의 전문가들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며, 발주자의 요구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
  - 적절한 발주방식과 디자인팀 선정 기준, 디자인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가이드라인, 디자인 코드 등과 같은 디자인기준,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기준 등을 제시



자료출처 : CABB

### 3. 「Design Review」를 통한 디자인 개선 권고

#### 리뷰 패널의 구성 및 운영

- 정책 현안별 패널을 구성, 현재는 『국가디자인리뷰패널』, 『런던2012패널』, 『학교디자인패널』, 『크로스레일디자인패널』의 4개 분야 패널이 활동 중
- 각 분야별 패널은 건축, 도시계획·설계, 조경, 행정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~30명 내외로 구성되며, 프로젝트별로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4~6명의 패널이 참여

#### 「Design Review」의 대상

- 공공프로젝트는 기획단계에서 「Design Enabling」을 통해 디자인 절차와 방법론 등을 컨설팅하고, 계획단계에서 디자인리뷰를 통해 구체적인 디자인 개선을 권고
- 민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디자인리뷰를 진행
-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연간 약 400건을 선별하여 디자인리뷰를 진행하며 이러한 수치는 전체 공공프로젝트의 3%에 해당

#### 「Design Review」의 역할

- 디자인리뷰는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, 리뷰를 통해 계획안이 수정된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재검토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
- 리뷰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좋은 디자인은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지원하고 격려
- 리뷰 결과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CABE의 웹사이트에 게재

#### 「Design Review」의 유형별 프로세스

- 리뷰는 수행방법에 따라 『프레젠테이션패널리뷰』, 『내부패널리뷰』, 『데스크탑리뷰』로 구분하여 진행
- 『프레젠테이션패널리뷰』는 통상 1시간이 소요되며, 초기 15분 정도는 설계자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에 토론을 진행, 매달 8건을 리뷰
- 『내부패널리뷰』는 패널들만 모여서 진행되며 매달 10건을 리뷰, 『데스크탑리뷰』는 패널들의 의견만을 취합하는 형태로 매달 24건을 리뷰



사진출처 : CABE

## 4. 「DQI」를 통한 디자인 품질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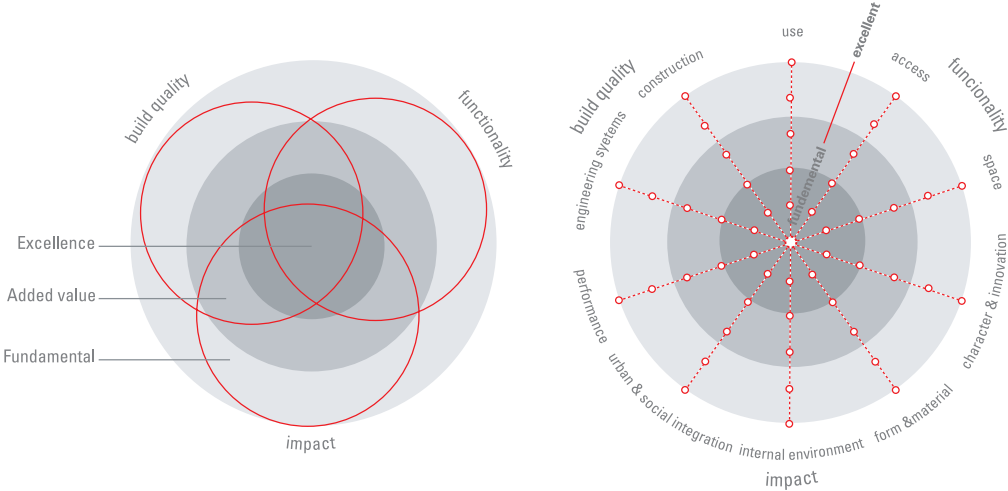
### DQI의 도입배경

- 디자인품질지표(DQI, Design Quality Indicator)는 건설산업위원회 주관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품질 향상과 지속적으로 관리도구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을 추진
- 공공 또는 민간발주자, 개발업자, 재무관리자, 건축사, 건설회사, 관리자, 그리고 입주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사용가능한 도구로서 개발

### DQI Tool의 종류와 3가지 구성요소

- DQI Tool은 기획단계에서 사용하는 Briefing Tool과 설계단계 이후에 사용하는 Assessment tool로 구분됨
  - Briefing Tool은 기획단계에서 프로젝트의 평가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하며, Assessment Tool 은 단계별로 In-use, Mid design, Ready for Occupation 버전으로 나뉘고 각 단계별 워크숍을 통해 디자인품질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
- DQI Tool은 질문지와 중요도, 시각화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짐
  - 질문지는 안전성, 유용성 심미성의 10가지 질문 유형별로 짧고 간단하며 평범하게 구성
  - 중요도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치에 따라 「Fundamental」, 「Added value」, 「Excellence」의 3단계로 구분
  - 시각화는 평가결과에 대한 응답자 그룹간과 프로젝트단계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현하는 것을 말함

중요도와 시각화 예시



자료출처 : CIC

DQI Tool을 이용한 디자인관리 프로세스

- DQI는 조직화된 워크숍과 온라인 툴의 결합을 통해서 작동
  - 워크숍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은 사용자들로 구성된 평가그룹에게 건축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평가그룹은 개인별로 응답자가 되며, 온라인 툴은 이 평가그룹의 평가를 위해 준비된 건물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일련의 질문들로 구성
- 초기 브리핑단계의 워크숍 결과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초기단계에서 워크숍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함

DQI 프로세스의 주요 관련자들

- DQI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관련자들로는 DQI Facilitator, DQI Administrator, DQI Leader 등이 있음

DQI의 관련자들

공급자그룹 (Supply Group)	전문가그룹 (Support Group)	발주자그룹 (Demand Group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Architect</li><li>• Structural Engineering</li><li>• Building Services Engineers</li><li>• Specialist Designers</li><li>• Quantity Surveyors</li><li>• Engineers</li><li>• Project Manager</li><li>• Contractors</li><li>• Sub contractors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DQI Facilitator</li><li>• Client Advisors</li><li>• DQI Administrator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DQI Leader</li><li>• Client</li><li>• Facilities Manager</li><li>• Building Community</li><li>• Other building users</li><li>• Local Community</li></ul>



- DQI Facilitator : DQI 프로세스의 핵심 요소로서,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양성된 CIC의 승인을 받은 전문가
- DQI Administrator : DQI Leader에 의해 임명되며 DQI 프로세스를 조직적으로 보조하는 역할. DQI Leader를 도와 필수적인 지원활동을 수행(그 임명은 선택사항)
- DQI Leader : DQI 프로세스의 가치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진 프로젝트 진행 그룹내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평가그룹이 워크숍과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화하는 역할을 수행

## 5. 「좋은 공공건축물」 포상을 통한 디자인 선도

### 제도 도입의 목적 및 운영현황

- 좋은 공공건축물 포상제도(The Prime Minister's Better Public Building Award)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배분을 개선하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커뮤니티 증진,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목적으로 도입
- 운영주체는 CABE와 OGC가 공동 운영하며,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매년 수상작을 결정하고, 시상내역은 수상상 1개와 기타 10개 프로젝트로 구성

### 역대 수상작들



자료출처 : CABE

## 6. 영국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 정책의 시사점

- 공공건축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, 21세기 무한 도시경쟁시대에 문화적 자산가치를 바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함
- 공공건축이 지닌 가치를 충분히 인식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추진 중
- 특히 영국은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위원회, 조달청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국제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성과를 이룸
-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6월에 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건축기본법이 발효되고, 동년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공공건축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제도적 토대가 갖추어짐
-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9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하게 될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도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향상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영국 등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공공건축의 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함

김상호 |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연구위원 (shkim@auri.re.kr, 031-478-9602)